흡수속건성 방적사의 상품화에 얽힌 숨은 얘기

후지보는 미국의 옵티마(Optima)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드라이 릴리스”사의 독점수입권과 상표독점 사용권을 2000년 9월에 획득하였다.

“드라이 릴리스”사는 폴리에스터 85%, 면 15%를 혼방함으로써 수분을 잘 흡수(吸收)하고, 빨리 건조하는 흡수 · 속건성(吸水速乾性) 기능을 갖고 있어, 후지보는 2001년에 아시아 지역의 독점제조권도 취득하고, 자본관계는 없는 타이의 방적회사에서 이 “드라이 릴리스”사를 생산하기로 하였다. 타이의 방적회사는 타이의 합섬메이커에, 이 기능사에 사용될 폴리에스터 섬유를 주문하자 일본의 모(母)합섬회사에 “드라이 릴리스”전용 폴리에스터 섬유를 신규로 개발하여, 이 기술을 타이 자(子)합섬회사로 전수해 주었다.

2001년 7월에 후지보 본사의 “드라이 릴리스” 담당자는, 타이에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이 기능사의 시방(試紡)을 시작하였는데 뜻밖의 트러블이 빈발하여, 후지보가 원하는 품질의 실을 뽑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2001년 10월에 간신히 최초의 수주분을 전량 생산하였지만 생산효율은 아주 좋지 않았다. 고생 끝에 부품이나 생산방법을 개량해 보면, 이것이 새로운 트러블의 원인이 되어 개량이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후지보 본사에서는 “증원해서라도 품질과 납기를 지켜줄 것”을 요구해 오므로 타이의 방적공장도 모든 능력을 아끼지 않고, 야간작업까지 하였으나 그만한 성과는 없었다.

마침내 방적회사에서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생산한 합섬회사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개량을 의뢰하고, 방적공장도 후지보의 지원을 받아 모든 공정을 철저히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개량된 폴리에스터 섬유를 철저히 정비된 방적

공정에 다시 투입하자, 드디어 아무런 트러블 없이 방적되었고 생산성도 정상화하였다.